

‘흙수저’들이 차지한 왕관... 108년 ‘염소의 저주’ 풀었다



시카고 컵스 선수들이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8-7로 누르고 우승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스터시티는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등 내로라하는 리그 강호들을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AP통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찬 한 해’

레스터시티 EPL 우승... 시카고 컵스 월드시리즈 제패

NBA 챔피언결정전 클리블랜드 1승3패 뒤집기 우승

아이슬란드, 유럽축구선수권 16강서 잉글랜드 잡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2016년은 ‘이변의 한 해’였다.

AP통신은 25일 2016년을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한 해’라고 규정하며 ‘스포츠 역사 예외는 아니었다’고 서술했다.

AP통신은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에서 1승 3패로 밀리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우승했고, 시즌 개막 전에 우승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 레스터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다”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

그에서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한 것도 사건이었다”고 올 한 해 스포츠계를 돌아봤다.

이 매체는 올해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 10개를 추려 정리했다. 명확하게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10개를 순서대로 늘어냈다.

맨 먼저 거론한 사건은 역시 NBA 챔피언결정전이었다.

르브른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4차전까지 1승 3패로 열세를 보였으나 5차전부터 3연승을 거두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골든스테이트는 정규리그에서 24

연승을 거두는 등 73승 9패로 역대 정규리그 최다승 기록까지 세웠으나 NBA 챔피언결정전 사상 최초로 3승 1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팀이 됐다.

두 번째는 시카고 컵스의 메이저리그 우승이다.

컵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한 월드시리즈에서 역시 1승 3패로 뒤지다가 승부를 뒤집었다.

1908년 이후 108년 만에 우승하며 ‘염소의 저주’를 풀어낸 컵스는 특히 마지막 7차전을 ‘케네디 스킨어’로 불리는 8-7로 이겨 더욱 짜릿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그다음으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를 제패한 레스터시티가 꼽혔다.

AP통신은 “레스터시티의 우승은 주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예상 밖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레스터시티는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등 내로라하는 리그 강호들을 제치고 말 그대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남자점영 100m 결승에서 조셉 스톨링(싱가포르)에게 패한 것과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호주 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결승에서 안젤리크 케르버(독일)에게 진 것도 주요 이변으로

지목됐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는 인구 30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가 ‘축구 중가’ 잉글랜드를 2-1로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켰고 미국의 주요 자동차 경주 대회인 인디 500에서 알렉산더 로시(미국)가 우승한 것 역시 예상 밖 결과였다.

이후에 종합격투기에서 코너 맥크리거(아일랜드)가 네이트 디아즈(미국)에게 패한 것과 마스터스에서 조던 스피스(미국)가 마지막 날 5타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대니 윌릿(잉글랜드)에게 ‘그린 재킷’을 내준 것 등이 올해 스포츠계의 ‘역전 드라마’로 꼽혔다. /연합뉴스

‘PGA 벙커샷 10선’

김경태 2위·최경주 10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6년 벙커샷 10선에 최경주(46·SK텔레콤)와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는 25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한 해 투어 대회에서 나온 벙커샷 명장면 10개를 추려 소개했다. 10개의 하이라이트 필름 가운데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선정됐다.

먼저 최경주가 10위에 자리했다.

최경주는 6월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열린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멋진 벙커샷으로 버디를 잡았다.

당시 최경주는 티샷을 러프로 보낸 뒤 두 번째 샷마저 그린 옆 벙커에 들어가 이날 유일한 보기를 기록할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약 10m 남짓한 거리에서 시도한 벙커샷을 그대로 활 안에 넣으면서 오히려 버디로 기분 좋게 3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최경주는 ‘벙커샷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벙커샷에 특히 강한 선수로 잘 알려졌다.

2013년에는 PGA 투어 샌드 세이브율 67.2%로 이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경태는 2016년 벙커샷 명장면 2위를 장식했다. 3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김경태는 최종 라운드 12번 홀(파5) 세 번째 샷을 그대로 활에 집어넣었다. 김경태는 약 133야드를 남기고 시도한 벙커샷으로 샷 이글을 잡아냈다. PGA 투어가 선정한 올해의 벙커샷 1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차지했다.

매킬로이는 9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옆 벙커에 빠트렸으나 벙커샷을 활 50cm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다.

매킬로이는 결국 이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에 6타나 뒤처져 있다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이브에의 질주 2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센추리 링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시애틀 시호크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에서 시애틀 시호크스 와이드 리시버 폴 리차드슨(10)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베스, 1초에 1500원 번다... 호날두의 2배

상하이 선화 이적뎀 주급 9억1천만원 ‘연봉 킹’

중국 프로축구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는 카를로스 테베스(보카 주니어스)가 1초에 1파운드(약 1천500원)씩 벌어들일 태세다. 상하이 선화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베스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받는 주급의 두 배를 벌면서 ‘연봉 킹’ 자리에 오르게 된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25일(한국시간) “세계 최고액 연봉 선수들, 호날두, 메시 그리고 놀라운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

를 통해 전 세계 고액 연봉선수 20명의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상하이 선화로부터 주급 61만5천만 파운드(약 9억1천만원)를 제시받은 테베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랐다.

테베스의 주급은 지난 23일 중국 상하이 상강 유니폼을 입은 첼시 출신 오스카르의 주급(40만 파운드)보다 무려 21만5천 파운드(약 3억1천800만원)나 많은 액수다.

오스카르는 테베스에 이어 연봉 2위에

올랐다. 테베스의 주급은 1초에 1파운드(약 1천 500원)씩 통장에 쌓이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러는 “하루 수입이 8만8천 파운드다. 매일 아침 럭셔리 스포츠카 포 르세 911을 한 대씩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나 머니’ 때문에 주급 36만5천 파운드를 받은 호날두는 3위에 밀렸고, 그의 팀 동료인 가레스 베일(주급 35만 파운드)은 4위에 랭크됐다.

메시는 주급 33만6000 파운드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메시의 주급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연합뉴스

테임즈 “ML 올스타 되겠다”

“한국 생활 그리울 것”

한국 KBO리그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좋은 대우를 받고 복귀한 에릭 테임즈가 ‘올스타’에 들어가는 것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

테임즈는 25일(한국시간) MLB닷컴에 실린 인터뷰에서 “내년이 기대된다. 새 팀, 새 코치, 새 동료들과 함께 야구할 좋은 기회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 올스타가 되고 싶다. 좋은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테임즈는 NC 다이노스에서 3시즌을 뛰며 KBO리그 최정상 타자로 활약하다가 이달 초 밀워키 브루어스와 3년 1천600만 달러(약 187억원)에 계약했다.

MLB닷컴은 테임즈에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도 궁금해했다.

테임즈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지 느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다. 일본일까? 한국일까? 미국으로 다시 올지는 정말 말 생각도 못 했다”며 “인생에 감사하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국을 향한 그리움도 드러냈다.

그는 “사람들이 보고 싶을 것 같다. 내가 사친 친구들, 동료 선수들, 코치들. 일상들도 조금 그리울 것 같다. 그곳에서의 시간을 즐겼고 후회는 없다. 물론 돌아가고 싶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친구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은 없지만, 추석 명절에 관한 즐거운 기억이 있다고 소개했다.

추석을 ‘한국식 추수감사절로, 어르신들과 조상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고 설명한 테임즈는 “전통 옷인 ‘한복’을 갖고 있다. 빨간 바지와 흰 저고리, 빨간 조끼로 된 비단옷이다. 젊은 사람들은 세



런해서 그 옷을 온종일 입지 않지만, 저와(팀 동료) 재크 슈투어트, 에릭 해커는 종일 입었다. 굉장했다”고 돌아봤다.

자신이 받은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과 최악의 선물도 공개했다.

그는 아이였을 때 자신이 원하던 ‘파워레인저 메가조드’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을 때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타격의 기초에 관한 책을 받았을 때는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또 자신이 메이저리그에 처음 올라온 2011년 어머니의 금시계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시계 가게에서 ‘정말 비싼’ 물건을 사서 선물했다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아직도 그 시계를 매일 착용하신다”는 ‘효행’도 공개했다.

테임즈는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말에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처럼, 나도 새해에 신을 새 양말과 속옷을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